"나체사진 보내라" 스마트폰 '조종범죄'

고교생이 여중생 협박·성폭행… 채팅 부작용 심각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까지 찍어 보내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고교생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심약한 여중생을 '조종'했으며 이 같은 범죄 유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핸드폰으로 지령을 내리는 사이비종교에 심취한 30대 가정주부가 전북 부안 한 모텔에서 두 딸을 살해하기도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2일 광주지역 모 고등학교 1학년 이모(16)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한 이군 핸드폰의 통화 및 문자전송기록을 근거로 여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8월29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A(13)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군은 A양은 성폭행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양에게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이군의 협박에 못 이겨 지난달 29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대중목욕탕에서 30대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A양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군이 두려워 성폭행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의 범죄 행각은 뒤늦게 이를 안 A양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네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을 경우 학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일진에게 말해 왕따를 시키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겁에 질린 A양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에는 이 사진을 학교 게시판 등에 유포하겠다고 해 A양을 성폭행했다.

이군은 A양을 만나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장소를 미리 정한 뒤 "약속시간까지 남자화장실 3번째 칸에서 안대를 쓰고 기다려라"고 스마트폰으로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이 때문에 A양은 이군의 얼굴을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이군은 무작위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A양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학교와 이름을 알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계정을 등록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교 1학년의 범죄 행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악랄한 수법"이라며 "어떻게 이 같은 범죄를 계획했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까칠한' 전남대병원

국립대병원 불친절 민원 2위

의료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도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까칠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에 접수된 민원 중 불친절과 진료불만에 대한 내용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민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접수된 2011건의 민원 중 불친절 민원이 410건(20%), 진료불만 454건(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불만도 89건 접수됐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 접수된 불친절·진료불만 민원 864건 중 경북대병원이 212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125건으로 2위였다. 이어 부산대병원 118건, 양산부산대병원 108건 등의 순이었다.

불친절·진료불만의 주요 사례로는 진료 중 환자를 무시하는 말투, 질문에 귀찮다는 듯한 답변, 산부인과 진료 시 예민한 질문을 크게 얘기하거나 의료처치 실수 후 후속처치 미흡 등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차례의 의사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국립대병원이라 할지라도 환자가 여러 불만을 제기한다면 훌륭한 병원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참 〈8673〉 김종두

광주 7대 범죄 발생률 1위 '불명예'

지난해 검거율 59%로 전년보다 10%P 하락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의 인구 10만명당 살인·강간 등 7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지난해 59%로 지난 2010년에 비해 10% 포인트 하락했다.

22일 이찬열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당 살인·강간 등 7대 범죄 발생건수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광주에서 2만5635건의 7대 범죄가 발생, 10만명당 175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230건보다 522건이 많은 것으로, 대전(1358건), 부산(1350건), 대구(1350건), 인천(1007건) 등 다른 광역시보다도 크게 높았다.

또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지난해 724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49건으로, 서울(51건)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반면 7대 범죄 검거율은 2009년 68%, 2010년 69% 등에서 2011년 10% 포인트 하락한 59%에 머물러 전국 평균(62%)을 밑돌았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5월부터 범죄 다발지역에 '치안올레길'을 운영하면서 그 주변지역 강력범죄가 25.7%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지만 광주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8월말 기준 1만6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 의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인의 참여를 통한 치안환경 조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강력범죄 발생 도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주 전반에 대한 치안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가을 소나기'… 물보라 조심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린 22일 갑자기 쏟아진 비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교통사고 70대 운전자 사망

22일 오후 1시52분께 여수시 좌수영로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모(여·35)씨가 운전하던 트라제 승합차량이 장모(77)씨의 코란도 측면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코란도 운전자 장씨가 숨지고 트라제 운전자 이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트라제 운전자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급전 빌려주겠다" 3억5천만원 챙겨

여수경찰, 일당 5명 영장

여수경찰은 22일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모(36)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 등은 지난 8월 17일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해 "5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인증과 신용정보 삭제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고 속여 150만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496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 대구, 부산, 목포 등지를 돌아다니며 차량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로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 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유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550만원, 현금카드 43장, 속칭 대포통장 148개, 대포폰 6대, 노트북 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유씨 등이 지난 8월부터 10억원 가량을 중국에 송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총책을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근로정신대 피해 모임 한국 법원에 첫 손배소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에 이어 한국 법원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24일 대법원이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피해를 당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7명(피해자 8명)은 지난 1999년 3월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5년 1심과 2007년 2심 재판에서 모두 패한 뒤 2008년 11월 11일 도쿄 최고재판소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시민모임은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7월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이달부터 미쓰비시 자동차, 니콘 카메라, 기린맥주 등 '미쓰비시 제품 불매 10만명 범국민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충장축제 화분 200개 훔쳐

쌍나팔

○…축제 기간 혼잡한 틈을 타 거리의 화분 수 백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서행.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농사를 짓고 있는 엄모(52)씨 등 6명은 추억의 7080충장축제가 열리고 있던 지난 18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갓길에 설치된 국화 화분 200여개를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화분에 자신이 기르고 있는 블루베리 묘목을 심기 위해 가족과 친척까지 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